

완도군 보길제2수원지 건설 정부지원 절실...230억 소요

2일 급수 10일 단수 불편 심각...“생존권까지 위협”



완도군은 28일 보길도와 노화도 등 섬지역 가뭄이 극심해 보길제2수원지 조성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낙연 총리가 지난 20일 완도군 보길면 가뭄현장을 방문해 보고를 받는 모습.

겨울가뭄이 극심한 완도 섬지역의 장기적인 식수난 해결을 위해 보길제2수원지 건설에 대한 정부지원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28일 완도군에 따르면 장기적인 겨울가뭄으로 보길면과 노화읍 주민 8000여명이 현재 2일 급수 10일 단수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완도군은 장기적인 식수난 해결을 위해 보길제2수원지 건설을 하고 예산 확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기존 보길 부흥수원지는 총 저수량 42만, 유효저수량 37만8000으로 수원지에 물이 가득 차 있을 경우 노화읍과 보길면 주민들이 150여일 정도 먹을 수 있는 용량이다. 보길제2수원지가 조성될 경우 총 저수량은 50만 규모로 인근 주민들이 360여일 동안 안정적으로 식수를 공급받을 수 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총 233억여원으로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최근 완도지역 가뭄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환경부 차관과 전남도지사 권한대행으로부터 가뭄 상황을 보고 받은 뒤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 총리는 “가뭄 상황이 급한 만큼 우선 계획을 세우고 재원은 전남도와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의하라”고 강조했다. 완도군 관계자는 “정부 관계부처가 도움을 주지 않으면 열악한 재정 형편상 보길제2수원지 축조는 장기화될 것이다”며 “생존권까지 위협받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관계부처 차원의 지원대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완도=김광수 기자

“마음의 다독임 행복의 큰 울림”

무안군 정신건강복지센터, 행복한 노후 정신건강교실 호응



무안군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난 16일부터 지역주민의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경로당, 보건진료소, 무안읍 장애인협회 사무실 등 13개소 350여명을 대상으로 행복한 노후 정신건강교실을 운영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행복한 노후 정신건강교실은 “마음의 다독임 행복의 큰 울림”이라는 주제로 자살위기 극복방법, 노인의 고독감·우울증 생활 스트레스 관리방법, 자살예방 게이트키퍼 교육, 생명 존중 자세와 정신건강에 대한 교육 등으로 구성된다. 한편 무안군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자살위기 상담전화(1577-0199)를 연중 운영해 정신건강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을 조기발견해 정신질환의 만성화를 예방하고자 사전예약을 통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3월부터는 매주 화, 목요일에는 중증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행복 주간 정신건강증진교실”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 교실은 운동, 음악, 미술치료 뿐만 아니라 질환에 대한 이해와 약물요법 정보제공 등 회복지향 프로그램으로 재향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정신건강복지센터 관계자는 “정신 질환자에 대한 편견해소로 정신질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자살예방사업을 통한 행복한 무안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무안=이기성 기자

“장흥군 숙박업소 이용하고 우드랜드 입장료 할인받아요”

업무협약 참여 숙박업체 이용객 30% 할인



장흥군은 지난 26일 지역 숙박업체 15곳과 상생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업무협약에 참여한 숙박업체를 이용하는 관광객들은 우드랜드 입장료 30%를 할인 받게 된다.

입장료 할인을 적용하면 성인 2,100원(기존 3,000원), 청소년 1,400원(기존 2,000원), 어린이 700원(기존 1,000원)에 우드랜드를 입장할 수 있다.

우드랜드 숙박시설이 모두 찾을 때에는 협약 체결 숙박업체로 우선 안내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2번째로 진행된 이날 협약은 관내 숙박업체를 이용자들의 좋은 반응으로 장흥군에서 재협약 추진키로 결정했다. 협약기간은 2018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2년이다. 김성 군수는 “이번 협약은 지역 관광발전을 물론, 지역사회 동반 성장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흥=김홍필 기자

장흥군버섯산업연구, 지역 산업체에 발효특허 기술이전

지역특산물 표고버섯의 다양한 산업화기술 개발

장흥군버섯산업연구원(원장 제해신)은 전남도내 한약재 가공·유통회사인 동부생약농조합(대표 홍재희)과 보유 특허에 대한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했다.

이날 체결식에는 장흥군버섯산업연구원 제해신 원장, 동부생약농조합 홍재희 대표와 기술이전을 중계한 전남테크노파크 이경관 기업지원단장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이전한 기술은 표고버섯 균사체를 이용하여 발효시킨 적하수오 발효물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여성 갱년기 증상의 예방과

개선 또는 치료용 조성물’에 관한 특허기술로 장흥군버섯산업연구원에서 지난 2년간 농림축산식품부의 ‘고부가가치 식품개발사업’으로 연구한 결과물이다.

이 기술은 갱년기 증상에 효능이 있다고 알려진 하수오와 면역력 향상 물질이 다량 함유되어 있는 표고버섯을 발효시켜 두 소재의 기능성은 향상시키고, 인체 내 자극성은 감소시켜 다양한 식약품 소재로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장흥군의 특산물인 표고버섯을 원료로 사용함에 따라 재배농가의 소득향상과 부가가치 창출이 기대된다.



제해신 장흥군버섯산업연구원장은 “최근 들어 연구원에서 개발한 특허기술이 (원천엔스토리 등 지역 산업체에 활발하게 이전되고 있다”며, “이번 기술이전을 통해 우리군에서 생산된 표고버섯의 새로운 활용 가능성이 모색되어 생산·가공·유통으로 이어지는 6차산업으로 활성화 될 것이다”는 기대감을 나타냈다.

장흥=김홍필 기자

진도 겨울대파, 적정가격 출하로 농가소득안정 위해 노력

지난해 비 368ha 증가...과잉생산·소비부진

진도군이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해 겨울대파의 적정가격 출하를 적극 목표로 홍보하고 있다.

올해 전국적으로 겨울대파 주산지인 진도, 신안, 영광, 부안 등에서 지난해 대비 368ha 증가한 3,542ha(12만천톤) 재배되어 과잉생산과 함께 소비부진 등으로 대파 가격하락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진도군은 겨울대파가 3~4년 주

기로 가격하락이 반복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주산지 중심의 자율적 수급조절 및 최저 가격 보장을 통한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시키고 있다.

특히 작년 8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초청 간담회 개최시 배추, 고추, 마늘, 양파, 무 등 정부 수급조절 품목에 겨울대파가 올해 8월부터 추가 품목으로 확정되는데 노력했다.

이에 따라 진도군은 겨울대파 적정가격 조기출하를 위한 ▲홍보 플래카드 제작(14개소) ▲리플렛 제작 대파 재배농가 배부(8천매) ▲전광판 활용 가격정보 실시간 제공 ▲대파 작업장(47개소) 순회 출하상황을 모니터링 하는 등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 대파재배 농가와 지역 농협 간 계약재배 참여 확대를 적극 유도하고 대파 채소가격 생산안정제 사업시행 등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진도=조성용 기자

진도개 테마파크 Jindo Dog Theme Park
천연기념물 제53호

진도개 테마파크

우리나라 토종개, 진도개의 공연과 경주를 보면서
진도개의 용맹함과 주인에 대한 충직함을 느끼며
진도개에게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진도개 공연 · 경주안내

운영기간 : 3월 1일~12월 31일 / 관 료 : 무료

구분	평일(월~금)	토요일	일요일
장소	평일공연장	주말공연장, 경주장	
공연	10:00, 15:00	13:00	
경주	-	13:20	
진행	진도개사업소 훈련사	진도개 공연단 진도개 경주단	

오시는 길!

도로명주소 | 전남 진도군 진도를 성죽길 30
내 비 주소 | 진도개테마파크
진도개사업소 | 061-540-6306

자카용 | 서해안고속도로 서울-당진-군산-죽림JC-서명양IC 경유
남해안고속도로 부산-진주-통천JC-서명양IC 경유

KTX, SRT | 서울-목포(2시간 30분 소요) 1월 30회
수서-목포(2시간 30분 소요) 1월 9회
※ 목포→진도 버스 이용

버스 | 서울→진도(5시간 소요) 1월 4회
목포→진도(1시간 소요) 1월 22회